

한반도 평화 위한 연중행사 펼쳐진다

대회운영위 2월 20일 기자회견... 연간 계획 발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주제로 한 한반도 평화대회가 2013년 펼쳐진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주최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대회 수석부위원장·사진)은 "한국전쟁 정전 60년을 맞아 남북한간 새로운 관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의 천도와 살아남은 자들의 해원을 바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중 행사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한반도평화대회를 위해 중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위원장에게 총무위원 자승 스님, 수석부위원장에 포교원장 지원 스님, 상임운영위원장에 수불 스님, 공동운영위원장에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경우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공동집행위원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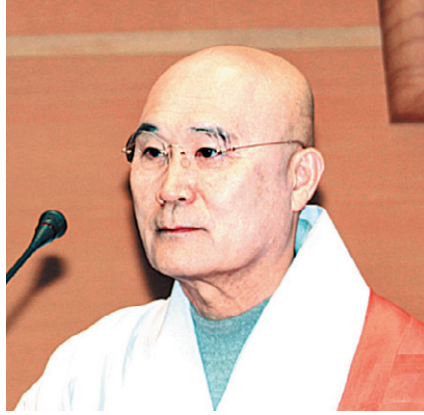
- 3월 26일 부산 평화기원수룩제
- 4월 30일 남북통일기원대법회
- 5월 10~13일 잇닿은 초정 평화걷기
- 6월 16일 한국전쟁 전사자위령법회
- 7월 27일 한반도평화기원세미나
- 9월 27일 한반도평화대회 본행사

송묵 스님과 선재 스님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한반도평화대회는 2월 중 홍보대사 위촉이 진행되며 2월 27일 범어사에서 평화기원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3월 15일에는 포교사단, 국군충신대회 등 한국전쟁에 관련된 불자들이 모두 함께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3월 26일에는 범어사에서 평화기원수룩제가 봉행된다.

4월 중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들을



초청한 리셉션과 함께 4월 30일 통도사와 양산실내체육관에서는 남북통일 기원법회가 열린다.

5월 10일 범어사와 13일 서울 잠실에서는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인 잇닿은 스님과 함께하는 평화걷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6월 6일에는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동련, 파라미타와 함께 청소년 어린이 평화사생대회 및 평화 동영상 공모전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용산전쟁기념관에서 6·25전사자 위문위령법회가 개최된다.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는 범어사에서 이웃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한반도평화기원세미나가 열린다.

법정 스님 3주기 추모법회 열린다

3월 7일 길상사 설법전서... 진영 봉안식도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운)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오는 3월 7일 오전 11시 경내 설법전에서 3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 법회에는 법정 스님의 문도 스님들과 조계종 중진 스님들, '맑고 향기롭게'의 임원 및 길상사 신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길상사 경내 진영각에서 진영 봉안식을 개최한다. 이곳에는 스님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친필 서예 작품 등의 유품과 책들이 진영



된다. 스님은 1992년 17년간 머물렀던 송광사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수류산방으로 옮겼는데, 3주기를 맞아 수류산방의 유품들도 진영각에 모으게 된 것이다.

법정 스님의 양력 기일 하루 전인 3월 10일 오후 2시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스님을 기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도 열린다. (02)3672-5945 신종일 기자

불교상품 대상 '그 마음을...' 선정

사업단 5회 공모전 결과... 550작품 접수돼

단일 공모전 최대 규모로 성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제5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에 정경은(홍익대) 씨의 '그 마음을 걸어주세요'가 선정됐다.

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5일 대상을 비롯한 우수상, 특별상 등 총 39점에 대한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정경은 씨의 '그 마음을 걸어주세요'는

합장하는 모습을 묘사한 다용도 걸이로 실용성과 동시에 불교적 감성을 담아낸 생활 디자인 소품으로 큰 점수를 받았다.

정 씨는 "평소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았다. 누구에게나 공감하고, 편안한 상품으로 여유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에는 이현정 씨의 '아트도이-개구쟁이 동자승'과 류귀화 씨의 탁종이 인형 '동자승 시리즈'가 선정됐다. 특히 이현정 씨의 '개구쟁이 동자승'은 익살스럽게 제작된 피규어에 원하는 색을 직접 칠할 수 있는 키트(KIT)상품으로 구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에는 목탁을 스마트펜과 USB로 재해석한 장경민 씨의 'Sound of Temple'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모전은 이전 보다 참가 인원과 작품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작품 수는 총 550점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정경은 씨의 '그 마음을 걸어주세요'.

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일반 기업과 국가 공모전의 접수 작품 수가 평균 200~300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문화사업단의 공모전은 단일 공모전으로는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를 활발히 펼쳤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이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며 "실제 일반 작가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가족 단위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며,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념관과 불교박물관,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등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티베트의 평화적 문제 해결 기원"

화쟁위 사태 성명 발표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중평위)는 2월 2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쟁위와 중평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100명을 넘어서 티베트 분신사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연기의 세계관과 동체대비의 삶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들의 소중한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불교에서 소신공양은 깨달음을 얻거나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며 불자로서의 비폭력에 대한 신념과 초월적 자비가 담겨 있다"며 "중국 정부도 평화적 방법으로 티베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국제 사회의 접근 허용, 종교와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의 최소한의 자유와 인도적 조치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신종일 기자

"불자 지성인의 산실로 거듭나자"

교불련 창립 25주년

기념법회서 제언 쏟아져

불자교수들의 결집체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1988년 2월 27일 발기인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원정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교불련은 초대회장에 고준환교수를 선출하고 불자교수들의 실행 결집체 역할을 담당해왔다. 500여 회원으로 시작한 교불련은 매년 하계수련회와 추계학술대회, 한일공동학술대회, 교수불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책으로 펴내며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종교평화 시국에서의 불자 기독교 공동학술대회 등 각 사안마다 지성인을 대표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창립법회를 맞아 열린 토론의 장에서는 이러한 교불련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2013년 현재 교불련 회원 수는 1800여 명, 전국 대학교수가 7만 6200명에 이르는 가운데 회원수가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장을 맡기도 했던 박광서 교수는 "불자비율 18.6%와 창립 25주년이 지난 단체란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초라한



최용춘 회장, 류종민 교수, 박광서 교수, 배광식 교수, 정천구 교수

최용춘 회장 "창립시 마음으로 정진"

류종민 교수 "감성적 동기부여 필요"

박광서 교수 "1800회원 회비납부"

배광식 교수 "인터넷 활용 필요"

정천구 교수 "실행, 학술모임 마련"

상황"이라며 "더욱이 회비를 내는 정회원 수는 수십명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불련이 존재의의를 살리고 한국불교의 등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자교수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고 정회원 확대와 회비 정착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춘 교불련 회장이 이날 "불교적 사고를 지닌 인재들이 사회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인재육성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소회를 밝히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시 창립 시의 마음으로 정진해 가자"며 회원 교수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명예교수는 "임원의 책무나 회원의 참여도에는 도반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감성적 동기부여를 위해 초기 구성된 교불련 법사단을 재구성하고 TV나 인터넷을 활용해 법회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배광식 서울대 교수와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도 실행모임을 통한 회원교수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단체·전법단 간 유기적 관계 필요

포교원 전법단 워크숍서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단장 계상)은 2월 19~20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법단 지도법사 워크숍을 열고 포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포교단체와 전법단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하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또 지역 전법단과 분야 전법단이 상호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임장이 나왔다.

지도법사들은 군법당에서 상영할 다양한 영상물 제작 및 배부를 주문했으며 문화분야에도 전법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2013. 03. 07 목 _ 10 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불교박람회

불교,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주최

불교신문 불교총파사

주관

2013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마인드디자인

후원

명림문화재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 힐링스테이지 무대프로그램

상시프로그램 | 금강경 독송회 '불교문화영상상'

7(목)	14:00 개막식 관우용단 축하공연 16:00 불교사회적기업 네트워킹 Party
8(금)	14:00 월호스님의 금강경 공개강연 골공사 선무도, 행불선원합창단 공연 16:00 한국문화유산콘서트 (KOREA HERITAGE CONCERT)
9(토)	11:00 헤거스님의 청소년 힐링프로그램 14:00 수불스님의 '참 나를 찾아서' Vimutti 팸페라 공연 16:00 이웃사이더의 아픔 깨내놓기 토크콘서트 '아파소'
10(일)	13:00 불교출판협회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15:00 테라와다스님의 수행지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2013불교박람회 사무국

전화 02.2231.2013

팩스 02.2231.2016

홈페이지 www.bexpo.kr

불교박람회 입장료 3000원 (입장료는 비영리 단체후원 및 문화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미니마켓 자점사무소 입장

주최 불교신문 (주)마인드디자인

주관 2013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마인드디자인

주최 불교신문 (주)마인드디자인

주관 2013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마인드디자인

주최 불교신문 (주)마인드디자인

주관 2013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마인드디자인

서울특별시 2013 불교박람회

Buddhism Expo